



오늘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5 | 꿈꾸는3막 / 6교구모임 | 9 | 어와나 클로징데이 / 늘푸른대학 |
| 3 | 대림절 달력 | 6-8 | 임직자 소감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4 | 결혼예비학교 / 해피맘스쿨 | 9 | 교역자 사임인사 | 11 | 십자말씀이 |



그날에 함께 할 고백

유소년숲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대림절 찬양이 있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때로는 아이들의 찬양만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백도 없는 듯합니다. 대림절 달력에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씩 지워가며 기다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 날일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그 날에 우리 모두 진심이 담긴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⑦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그 이야기를 기억함 -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이야기

이 책 전체에 걸쳐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이다. 구약으로 돌아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해 거기에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그들이 참여했던 큰 이야기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출애굽 이야기이다.

성경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었던 큰 이야기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에 관여하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출애굽기 19장 3~6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출애굽 이야기에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기억함 - 이제까지의 이야기

출애굽기 19장 3~6절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특권 및 책임감도 함께 제공했다. 하나님은 뒤로 이스라엘의 최근 과거를 가리키시며, 앞으로 모든 열방을 위한 그분의 미래 비전을 가리키신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책임을 가리키신다. 사면팔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과거의 은혜 : 하나님의 구원 - 출애굽기 19: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 은혜에 근거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사람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 대한 생각은 왜곡된 생각이다.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 은혜가 먼저 오고, 믿음은 그 다음에 온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반응이다.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역사적 구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 및 우리의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은혜 : 하나님의 선교 - 출애굽기 19:5b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정말로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세계적 소유권이라는 더 넓은 보편적 틀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세계가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의 주권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 범위다.

어느 세대에 속하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교적 반응은 과거와 미래, 은혜와 영광, 역사적 구원과 계속되는 선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우리가 온 곳과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사이에 놓여 있다.

현재의 은혜 :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 출애굽기 19:6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 명령을 알리는 일을 하도록 임명받았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지실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백성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곧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역시 그들의 주요한 특권이며 책임이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울도 그의 역할을 열방에 하나님을 제시하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제를 타문 화권 선교사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거나 구별된다는 뜻을 지닌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므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이 거룩함은 선택과 함께 명령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매일의 삶 속에서 표현해내야 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다르게 살고 행동했다. 신약에서도 거룩함은 소명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필수 요소는 그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즉 실제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는 당신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갈 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집과 이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곳은 바로 그곳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에 의해 전진하는 선교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보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짓 신들의 타락한 추함 및 무력함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한국기독교공부
주간논단

대림절 달력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교단 기관자인 한국기독교공부에 실린 대림절 관련 주간논단 '대림절 달력' 기사를 전제합니다.

함줄함울

이맘때가 되면 유럽이나 미국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 바로 대림절 달력(Advent Calender)이다. 독일에서는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에 예쁜 그림이 인쇄된 대림절 달력을 만든다. 아이들은 아침에 눈뜨기 무섭게 달력으로 달려가 오늘의 날짜를 뜯어낸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 초콜릿,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자란 필자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달력을 뜯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는 즐거움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독일에서는 이 시기에 대림절 달력 외에 대림절 화환(Advent Wreath)을 만든다. 전나무 가지를 둥그랗게 엮고 리본, 솔방울, 말린 과일 등으로 장식을 한다. 화환에는 네 개의 초를 세우고 중앙에 초 한 자루를 세운다. 이 대림절 화환을 식탁에 올려놓고 한 주일에 하나씩 네 개의 촛불을 켜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 이러한 성탄 장식들의 전통은 1930년대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활성화시킨 것은 독일 함부르크의 비션(Hohann Hinrich Wichern)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비션은 그의 고향 함부르크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1833년 "라우에 하우스(따뜻한 집)"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의 직업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켰다. 그는 성탄절을 맞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대림절 달력과 대림절 화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교육하게 된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달력 한 장 한 장을 떼면서, 대림절 화환에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기다림에 대해 가르쳤을 것이다. 라우에 하우스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희망이며 전부였을 것이다. 성탄절 선물에 대한 즐거운 기다림, 지금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포근한 가족을 만날 것에 대한 애절한 기다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 그들에게 대림절은 단순한 성탄의 기다림을 넘어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기다림인 것이다.

다시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보내기보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 '라우에 하우스'의 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희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무력충돌 등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분쟁의 소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소리가 되어지길 바란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난민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불안의 마음들이 대림절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평안과 안정으로 바뀌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 코로나를 겪으며 흔들리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3000여 농어촌교회들이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성탄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한호 목사 / 춘천동부교회·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연구소장

유아숲
대림절 말씀 달력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요

유아숲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림절 말씀 달력을 제작했다. 대림절 말씀을 매일 하나씩 순서대로 읽은 후 말씀 구절마다 가정에서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잠들기 전에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말씀달력과 함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순간부터 목자들과 동방박사, 마굿간에서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스티커를 붙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스티커북도 함께 제공되어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성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함줄함울



가정사역원
결혼예비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출발 - 결혼예비학교

제22기 결혼예비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원규-전수빈, 김태훈-김혜림, 임태용-황혜슬, 이선후-김나영, 조경일-이난희 커플, 총 다섯 쌍의 아름다운 커플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결혼예비학교의 자리는 어색함으로 출발했지만, 3주간의 시간을 거치며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사랑의 언어들로 상대를 대하며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박준범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결혼>을 주제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의 실재를 나누었고, 두 번째 강의(전지원 집사)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를 주제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세 번째 강의(이정민 집사)는 <닮은 듯 다른 우리>를 주제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기질과 각자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의(신재범

집사)는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다섯 번째 강의(이정민 집사)는 <커플 동작 Therapy>를 주제로 부부가 함께 몸을 움직이며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섯 커플과 강의를 준비한 스텝들이 함께 솔직한 결혼생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꾸려가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수료한 다섯 커플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차이들을 전문적 지식으로 다루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커플들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간증은 스텝들과 커플들 모두에게 감동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수료한 다섯 커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일구어가기에 소망합니다.

박준범 목사 / 가정사역원 결혼예비학교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임산부의 행복한 몸과 마음을 위한 태교·예배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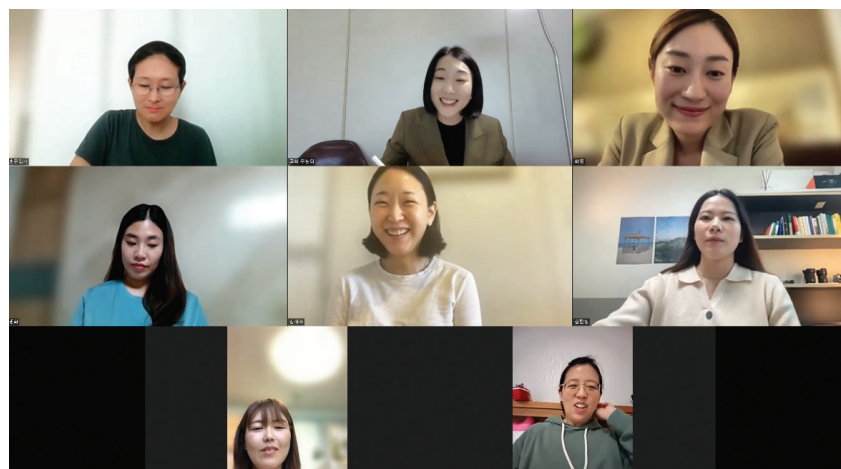
샬롬♥ 해피맘스쿨은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 임산부학교입니다. 해피맘스쿨은 태교·예배의 자리로 매년 상반기·하반기(8주)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하는 8기 엄마들과 함께하면서 일상의 달라진 많은 것들에 참 감사했습니다. 가을에 시작했는데 어느덧 겨울이 된 이 시점이 감사하고, 엄마들의 몸과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졌음에 감사합니다.

명화엄마의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지안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곧 12월에 출산을 앞둔 현정엄마의 뱃속이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의 뱃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성장하고 있는 수민엄마의 축복이와 혜수엄마의 뱃속이, 화영엄마의 난티와 지유

엄마의 소중이를 떠올리면서,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8기 ‘기도하는 엄마, 잠언 태교’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주께 의지함으로 세상의 이치와 방법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임을 삶 속에 새깁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매 순간을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선 목사 /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가정사역원
꿈꾸는 3막

영봉바라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꿈꾸는 3막 2기, 1학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계속 이어질 꿈꾸는 3막 2기의 2학기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가정사역원

샬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주차 강의 를 무사히 다 마치고 닫는 예배에 참석함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동안 교회 재정관련 계수부에서 현금 봉사 사역을 2021년까지 했습니다. 이후 구역 겨자씨 모임에 참석 없이 지내면서 새로운 신앙관계를 모색 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때 꿈꾸는 3막을 만났습니다. 6조 조별 모임의 초대는 저에게 신앙적으로 큰 격려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꿈꾸는 3막 첫 시작 때 정한 저의 비전 이름은 '영봉바라기'였습니다. '영 봉'은 영성과 봉사사역을 합쳐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즉 건강하고 지혜롭 고 영성을 지닌 액티브 시니어가 목표인 제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이었습 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성경공부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큐티책과 성경 통독을 통해 이어갔고, 꿈꾸는 3막의 내용들을 매주 준비하고 따라가면 서 날마다 신앙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기 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여정을 돌아보니 제가 처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 난 것은 50년 전인 1973년 가을이었습니다. 경북 울진 군부대에서 소대 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당시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에 파견되어 일주일간 입소했던 경험과 새벽 예배와 저녁 찬양 예배, 또 식 사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떠올라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꿈꾸는 3막을 통해 배우며 발전하기 위 해 노력한 최근 한 달간의 삶을 추억해보니 세 개의 화두가 떠오릅니다. '신앙생활', '봉사와 친교', 그리고 '건강'입니다. 최우선으로 노년에 하나 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목표 로 삼았고, 관계망을 공부하며 혈연관계망, 신앙관계망, 사회 관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공부하며 저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 하게 됩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만 50세인 1999 년에 25년 근무하던 외환은행에서 퇴직하고 일 년여의 기간은 인생의 많 은 시험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 셧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재취업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며 주께서 인도하신 예금보험공사 기독교신우회에서 매주 예배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끝으로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연등을 다시던 장모님이 2014년 당시 82세의 연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날까지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며 명예권사로 추대된 것 등 저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예수님을 닮 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채홍 집사



겨자씨이야기
6교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성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님의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믿음과 결속 그리고 소통을 위해 겨자씨 모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송파구에 있기 에 그 근방의 구민이나 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교통의 발달과 전도의 확산으로 교인 거주지역이 확산되어 있기에 여러 교구를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성동구는 6교구에 속해 있으며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 로 하되 멀리 있는 지역 거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멀리 떨어진 도봉구나 의정부시 거주 교인도 있습니다. 어느 겨자씨는 교인 들이 더더욱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한대'란 겨자씨 모임을 만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미천하여 왕초보 신자이기에 이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후회가 따릅니 다. 또한 원만한 삶을 위하여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겠기에 어느 성 도가 나와 같은 교구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 11일(토)에 6교구 단합대회가 있다고 하여 나 가봤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뵈긴 했지만 같은 교구인 것을 처음으로 알 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고 친절했습니다. 예배시간 목사님

의 설교도 감명 있게 들려왔고, 식사, 간증, 특송, 겨자씨 소개 시간에도 큰 은혜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가 아 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성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가 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해의 연말이 다가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산적 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들과 성도들 이 있고, 이념적-지역적 갈등 같은 정치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으로 개인과 국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는 실천하며 줄 수 있는 기도, 애국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 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병택 집사 / 6교구



항존직 임직
임직 소감문

이런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3일 3부예배 때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5월에 실시된 2022·2023년 통합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3인, 안수집사 9인, 권사 19인이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소감과 함께 항존직 여러분을 소개합니다.(가나다 순)

함께함

■ 장로



박기운 장로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로서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고 본을 보이며 술선수범하며 낮은 자로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넓히고, 부지런히 일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호철 장로

부족함과 흠이 있다면 기도로 채워가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충성을 다짐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역자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성도들도 세심하게 섬기며, 사역도 기쁨과 화합으로 충성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상기 장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처럼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겸비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 안수집사



김훈 안수집사

준비되지 못한 저를 직분자로 택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택함을 받은 직분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겸손히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목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거듭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송성욱 안수집사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시려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는데 새롭게 주어진 사명임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영민 안수집사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피택되어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피택 동기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경청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윤상현 안수집사

부족한 저를 주님의교회 안수집사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겠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작은 도구로나마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이용욱 안수집사

뜨거운 여름을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섭리만큼 놀라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의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움이 아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훈련과 습관이 내게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멋지게 채워가겠습니다.



임성훈 안수집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피택자 추천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의교회에서 그동안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 봉사해야 될 순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불러온 포도원 일꾼인데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바라며, 매일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사결정하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지형민 안수집사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저를 말씀을 통해 불러 주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날마다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전 9:18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겠습니다.



차 호 안수집사

처음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을 때 제가 모르는 교우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관심과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무겁고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마음가짐을 매일 되새기며 말만 앞선 임직자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최태섭 안수집사

세상을 향해 억지부리던 저를 주님께서 깎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저의 신앙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선하고 성실한 도구로 쓰임 받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 권사



고영선 권사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붙여 주신 지도자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나누고 기쁨으로 동역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불러주신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 받으며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김숙연 권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에서도 주님의교회로 불러 주시고 또한 권사라는 지체로 인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택교육을 거치며 배운 말씀을 관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우상을 따르지 않기를 그렇게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존전에서 의 삶이 되기 위해 구별되어 살고 깨어 있겠습니다.



남궁옥귀 권사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으로 영성을 다져나가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 활동에 협조하고 주님의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희 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권사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숨은 봉사에 힘쓰며 모든 일을 긍정적인 사고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행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사에 즐거움으로 나누고 베풀며 감사하는 삶 되겠습니다.



배정애 권사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시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죄인을 담금질하시어 계획하신 일에 조금이라도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권사로 주어진 사역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신말희 권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부족하고 흠 많은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교육과 순종으로 어느 자리에서 직분자로 섬기더라도 말씀과 섬김과 교제로 잘 균형 잡힌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변의 공간에 기쁘고 뛰어나게 반응하는 일꾼으로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합니다.



유종숙 권사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시47:6)’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피택교육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더 힘쓰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받은 직분을 겸손과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유지연 권사

지금까지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많은 저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윤금자 권사

피택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후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기도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윤기선 권사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살아온 삶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아 권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저의 인생 구석구석을 세밀히 간섭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허락하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섬기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경희 권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맡은 일에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자 권사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코끝에 호홉 있는 날까지 생명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정화 권사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떼쓰기 기도만 했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피택자 훈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이제 변화되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혜영 권사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주어진 사역에서 섬김의 자세로 임하며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해,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임광희 권사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과 동행하심을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 안에 잘 자라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현주 권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권사로 피택하여 주셨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전하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영민 권사

하나님을 영접한 세월이 언 48년. 대학교 1학년 봄, 불교를 숭상하는 친정엄마에게 저 혼자 예수님을 믿겠노라 홀로 영락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오르간반주가 웅장했고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믿음의 가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 보잘 것 없는 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주관자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최연호 권사

올해는 제게 정말 뜻 깊은 해였습니다. 연초에 막막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덤으로 권사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저를 감쌌지만 이내 용기를 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이 말씀 붙잡고 맡겨진 직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인사

거대한 배 같았던 주님의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주님의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목양실 전임 사역 4년까지 5년의 시간을 주님의교회 사역자로 보내었습니다.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 목사안수까지 받는 모든 과정을 귀한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앞으로의 사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목양실 사역의 특성상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사역하는 부분은 많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낀 주님의교회는 “거대한 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지 않고, 배의 키를 잡으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두가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사람에게 유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교회인 주님의교회에서 전임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교회를 사임하고 인도하심 따라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곳에서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이진명 목사



사임인사

주님의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샬롬! 유년부, 어와나 스팅스, 자녀축복새벽기도회를 담당했던 김경민 목사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부임해서 처음 예배드렸던 때가 떠오릅니다. 코로나의 영향 아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음껏 찬양하기 어렵던 시절,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고, 몸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매주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기쁘고, 자유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길 바라며 행복한 예배자로 성장하는 꿈을 꾸며 섬겼습니다. 설교 시간에 손들고 반응하고 참여하는 아이들, 먼저 다가와서 안기고 도란도란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는 아이들, 공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행복해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 삶에 너무나 큰 활력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저 의견도 내주시고 활동 후 피드백도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주시는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던 것은, 제게 참 큰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은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주님의교회의 모습을 믿기에 접어두고 기쁘게 인사를 나누며 떠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사역자가 되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경민 목사

어와나
클로징데이

앞으로도 계속될 주님의교회 어와나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말씀암송을 통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오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커비스(4~5세), 스팅스(6~초2), 티앤티(초3~초6), 트렉(중등), 저니(고등) 각 클럽별로 활동을 진행한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2023년 12월 3일(토)에 모든 클럽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클로징데이를 진행하였다. 각 클럽을 수료하는 친구들(커비스 14명, 스팅스 13명, 티앤티 17명, 트렉 7명, 저니 3명)을 축하하고 핸드북을 완성한 친구들을 시상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티앤티의 좌호연, 경재윤 클럽원은 티앤티 핸드북 전권(총 4권)의 암송구절을 한자리에서 암송하여 멀티플을 시상했으며, 20년동안 어와나 교사로 봉사한 티앤티 이정우 선생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늘푸른대학

현재가 최고의 선물

2023년 12기 늘푸른대학이 12월 5일(화)에 종강하였다. 3월 7일 입학식을 하여 1학기 17번, 2학기 13번 모두 30번 일정으로 12기 학사일정이 진행되었다. 종강예배는 김화수 담임목사가 참석하여 “현재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노래교실반, 라인댄스반, 오카리나반과 찬양대반에서는 발표회를 가졌고 연필 스케치반은 소식당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늘푸른대학은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기 늘푸른대학 원서 접수는 24년 2월 6일(화)에 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늘푸른대학 제12기 종강예배 단체사진

2023. 12. 05 / 주님의교회 중예배실

교회사용설명서②

<함글함글> 편집장 사용법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는 문서선교를 목적으로 펴내는 정기간행물 <함글함글>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은 평균 3주 간격으로 발행되며,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알아야 하는 것,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교회 사역과 행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신앙 간증과 기독교 교양 등이 포함됩니다. 소식의 전달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빠뜨리면 안 될 일들도 챙겨서 게재합니다. <함글함글>은 보통 8~12면 규모로 발행되며, 인쇄된 <함글함글>은 주일에 배포되고,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글함글>은 홍보출판부에서 발행하며, 편집장이 최종적으로 지면의 편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겨자씨 소식, 사역 현장의 모습을 담은 글과 사진을 <함글함글>에 게재하시고 싶거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수필, 간증, 신앙 관련 도서 독후감 등이 있을 때 편집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함글함글>에 글과 사진을 수록하시고 싶으시면 홍보출판부 공식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작성하신 글과 사진 원본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의 분량은 일반적으로 A4 용지 1면 정도, 글자 수로는 2,500자 안팎이면 됩니다. 글의 유형(기사, 간증, 수필, 독후감, 겨자씨 소식, 사역 소식, 선교 활동 등)과 함께 제목을 적어주시면 편집장이 편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사나 겨자씨 소식, 사역 소식, 선교 활동 등은 되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을 맞추어 써주시면 다른 분들이 글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설명을 달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넣어주셔야 할 것은 써주시는 분의 성함과 직분, 교구나 사역부서입니다. 함글함글에 따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함글함글'이

라고 적혀 있는 기사들은 모두 함글함글팀 편집장과 기자들이 쓴 것입니다. 저희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편집장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함께 나누면 좋을 미담을 알려주시거나, 특별하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아야 할 일에 대한 취재 요청, 인물 탐방 추천, 인터뷰 요청 등도 대환영입니다. <함글함글> 편집장과 기자들이 직접 연락을 드려서 만나 뵙고 취재하여 기사를 씁니다. 혹시 우리가 꼭 알고 고쳐야 할 교회 안의 문제점 등도 제보하여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함글함글이 교회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펴낸 <주님의교회 25년사> (2014)의 경우, 많은 역사적 기록을 <함글함글>에서 찾아 수록했습니다. 사역보고서와 같은 공식 기록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보고서가 없거나 망실된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계획과 실행의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역부서의 특별한 행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등의 기록은 주로 <함글함글>에서 찾아 그 중요성과 결과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각 사역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록 익숙하지 않거나 바쁘시더라도 관련 내용을 함글함글에 알려주시면 귀하게 헌신하신 사역을 교회 기록으로 남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는 매우 큰 교회여서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서로 대화 없이 익명성 속에 지내는 편안함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 공동체는 서로 가족이 되어 사정과 소식을 나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이곳이 주님의교회입니다. 이곳에는 '고양이 집사' 아닌 '함글함글 집사'를 자임하며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이의 전화번호는 010-2951-4487입니다.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기도할 때 잘못 쓰는 말

할렐루야로 기도 시작하기

할렐루야는 '야웨를 찬양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끼리 권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구를 암송하며 기도 시작하기

기도 인도자가 기도 서두에 교훈적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부적절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할 말을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회중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경우, 그것은 사람을 의식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도 도중에 근거를 대기 위해 성경구절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나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하옵소서"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말에서 '당신'이라는 말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는 2인칭 대명사로서, 자기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다른 경우는 3인칭 극존칭 대명사로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아주 많이 높여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번째 경우를 잘못 적용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임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대명사로서의 '당신'이 되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말 쓰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분인 하나님이 최상위자이시므로 다른 어떤 사람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우리 목사님께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목자' 또는 '사역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글함글 /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잠언 편

지난 호에 수록했던 <잠언>편을 다시 올립니다. 힌트의 번호와 빈칸의 수가 맞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호 파일 에러가 발생하여 <잠언>편의 힌트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교정이 모두 끝난 후의 과정이어서 배포 전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 마감과 송고 일정을 좀 더 당겨서, 나타나는 실수도 배포 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혼란스러우셨을 성도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잠언>은 보통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를 알려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箴言)'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4호 시편 편 정답

복	있	는	사	람		시			인
			랑			온	유	한	자
시	온	산		멸		의			하
넷			사	망	의	문		근	심
가	난	한	자		인		간		
에		마		공	의	와	구	원	
심		음	성		세			수	치
은					대	적	자		부
나	의	하	나	님			손		
무		늘			악	인	들	의	길

가로 힌트

1.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 "○○○○ ○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 3:35)
3. 매우 어리석고 둔한 사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 ○는 멸망하느니라" (잠 10:1)
5. 어느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잠 14:18)
6. 의로운 자가 걷거나 가야하는 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 ○을 지키게 하리니" (잠 2:20)
9. 사람마다, 또는 저마다. "많은 사람이 ○○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 20:6)
11.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들이 많음. "○○ ○○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잠 5:14)
12.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왕. 잠언에서는 솔로몬을 가리킨다. "다윗의 아들 ○○○○ ○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 1:1)
14.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어 걱정하는 것.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 17:25)
16. 문틀에 끼워서 여닫는 문의 한 짝. "○○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 26:14)
17. 수면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먼 바다. "그의 지식으로 ○○ ○○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 3:20)
19. 독한 술. "○○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 31:6)
21. 만나기 어려운 귀한 사람. <함줄함울>에 연재하는 '성경 십자말 풀이'를 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사람에 속한다.
22.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 "○○○○ ○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 14:15)

세로 힌트

1. 성경, 특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2. 본인 자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 8:36)
4. 여러 개로 작게 나뉜 것 중의 하나. "마른 떡 ○ ○○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7:1)
7. 기대고 의지할 만한 존재. "대저 여호와와는 네가 ○○○ ○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 3:26)
8. 솔로몬 왕 어렸을 때의 애칭이라고 알려진 이름. "○○○ ○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 31:1)
10. 즐거워하고 기뻐워하심.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을 받느니라" (잠 12:22)
13. 무덤이나 땅 밑 세계의 아주 낮은 곳.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 ○○ ○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 9:18)
15. 성문 근처, 또는 성문 앞.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 ○○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잠 1:21)
18. 무조건적이며 특별한 사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 14:35)
20. 국가의 주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 "○○○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 29:26)



2023 생명사랑 이웃사랑

후원음악회

12.10(주일)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꿈꾸는 3막 콰이어, 해금 연주 초등 2부 성가대
12.17(주일)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L Kids 청소년들 연합 오케스트라
12.24(주일)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오보에 듀엣 청소년부 워십팀, 청년부 워십팀, 에버다수어 찬양

12.10 ~12.24

주일 2,3부 예배 후

주님의교회 1층 로비

주최:  주님의교회 (주) (사)성경예배방송

2023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올해 성탄절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후원금은 여러분이 내주신 성탄절 헌금에서 사용됩니다.

캠페인 기간

2023. 12. 3(주일) ~ 25(월)

캠페인 내용

- ✦ 생명사랑 이웃사랑 희망상자 제작 전달 ✦
- ✦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웃돕기 공모사업 지원 ✦
- ✦ 유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복지사업 지원 ✦

주님의교회 (사)섬김과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희망상자

섬김과나눔과 함께 해주시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1주 보이스 모집합니다.

• 주최

 주님의교회

 사)섬김과나눔

• 협력

 가나대작

제4회

합	즐	합	울
신	춘	문	예
공		모	

○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면 이상
- 간중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면 이상

○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4년 한림학술 신년학림집으로** 발표합니다.

○ **보낼 곳**

- pdchamletter@naver.com 메일 제목에(한림학술 신년문예 공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 문의 : 이연진 안수집사 (010-2951-4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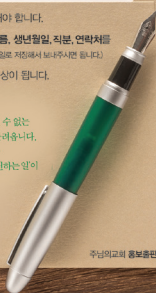
○ **참고 방법**

- 원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옆 글자모양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이름과 한자어는 원모로 직접하신 따옴표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 각 부문 별 최소 원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시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림학술에서 세례의 줄장학을 신년문예를 공모합니다.

코로니이라는 자에게게가 원모로에 의전적 세상은선악을 있게 기필수 없는
 힘과 힘의 대권로 가리킵니다. 때때로이 전쟁과 패배,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생 사물과 정화라는 주님 뜻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감이 있는 사유, 삶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유는언어로 이루어지며,
 언어로 전달됩니다. 할말들에서는 주님이 주신 지식을 교회,
 사회이교로 공동체에 이르기 조율한 의의가 가득한 것이있는 사유와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잘 쓰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림학술 신년문예를 공모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홍판부





남·여 선교회 행사

우리 교회 사랑 대청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행사를 실시 합니다.

일시 12.16 (토) 6:30AM

장소 집합 장소 : 지하식당
청소 구역 : 교회 예배실 및 정신학교 주변
후 원 : 청년부

주님의교회 | 남·여선교회

2023 주님의교회
성탄가족예배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우리를
잇다
Merry Christmas

12.24.(주일) 1:00PM 대예배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눅 2:14

rd+ 주님의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

John Rutter
- Gloria -

성탄절
음악예배

2023.12.25.(월) 12:30 PM 대예배실

• 주최 : 주님의교회 음악위원회 • 주관 : 호신나 찬양대 & 주오 오케스트라

교회일정

12/17(주일)	정기당회
12/24(주일)	성탄가족예배
12/25(월)	성탄예배

알립니다

1. 남녀선교회 주관 교회 대청소 안내

일시 : 12/16(토) 오전 6:30

장소 : 식당(지하)

2. 제3회 함즐함울 신춘문에 공고

공모 부문 : 시(3편), 수필(2편), 간증(2편)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pclhamletter@naver.com)

(메일 제목 :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 기입)

접수 마감 : 12/15(금) 24:00까지

문의 : 어진원 안수집사(010.2951.4487)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ihamletter@naver.com

